

지난 9월 20일 감사원과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는 52개 정부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응하여 감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37개의 정부기관의 2천6백여 명이 애초 설치할 때 내세운 것과는 달리 중장기 응용 계획이 없어 같은 사업을 예산과 재정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권고한 것과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는 24개 기관은 자체의 건전한 응용을 위해 정부 예산에 흡수, 동원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원의 이런 감사결과가 정부기관의 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기대했다.

특히 봉재관이 관심하고 있는 부문은 여성부가 2007년까지 1천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조성이 국가중요금으로 되어 있는 민간 출연금이 본래해야 하는지에 있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여성부 정책리뷰회의에서의 '여성발전기금 민간 출연금 조성 방안'에서 보면 '기업해마다 기금조성 방안'에서 민간출연금 유치에 통해 기금재원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성된 기금의 사용리형에 기금 출연자가 직접 참여 하므로써 수익과 부담의 원칙이라는 기금본연의 취지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여성부는 여성리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기업 이미지와 노사관계 등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들의 특장 제품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한류 기업에서도 이미지 메이킹되는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 배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처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성방안의 차이가 없다. 정부가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나서라는 것은 어느런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간부문에 있어 힘없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부기관의 관리 응용을 민간기관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정부도 민간기관들이 활동을 위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은 국회, 감사원 및 기업은행 등과 같은 여러 민간기관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정부 출연금의 재원조성 방식이 없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하고 있어서 라고 한다. 그렇지만 여성부 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의 예치이자를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데 자금과 같은 은행이들이 한양 주세에 있다면 기금응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고 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일반예산에 흡수하는 중장기 여성부의 일반예산으로 할 것이 오히려 기금조성과 일반예산간의 차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 고위정책을 확대하고 강행해서 정책실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받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부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부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부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이다.

36기증의 빛간지증의 기능을 배로잡는 일이다.